

錄 取 書

녹 음 일 시	2014년 4월 16일 9시 33분 ~ 11시 44분
녹 음 장 소	해양경찰청 경비전화 녹취록(2752)
대 화 자	본문 기재
녹 취 분 량	표지 外 34쪽

본 녹취록은 녹음CD의 내용과 일치함을 증명함.

2016년 4월 19일

속기법인 대한

(사업자등록번호 : 264-81-30602)

속기사 林鍾憲 ㉞

(자격번호 : 06-G2-000008)

- ▶ 본 녹취록은 녹음일시, 장소 및 대화자, 지문의 설정은 의뢰인이 한 것이며, 녹음 청취의 미비 등으로 인한 명사나 고유명사의 표기에 오기가 있을 수도 있음.
- ▶ 이해력을 돕기 위하여 불필요한 어구 침삭이나 일부 사투리, 어순 정리는 속기사의 재량으로 정리 하였음.
- ▶ '***' 표시는 청취불능 표시임.



◆ 녹음 순번 : #01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33분 01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/ 서해청 상황실장

남자 1 : 감사합니다. 상황실장입니다.

남자 2 : 예. 수고합니다. 목포 상황이 사람이 많이 났으니까 서해권을 붙이죠, 많이, 그쪽
으로.

남자 1 : 예. 다 연락했습니다.

남자 2 : 예,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02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33분 38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/ 서해청 상황실

남자 1 : 예. 감사합니다.

남자 2 : 예. 목포 상황이 긴박하니까요. 저한테 보고하고 빨리 움직이셨으면... 움직이도록 하세요.

남자 1 : 예, 예. 헬기... 김대식 계장님께서 헬기를 보낸다고 그런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런데요.

남자 2 : 아, 그래요? 알겠습니다. 일단 그렇게 하십시오, 그러면.

남자 1 : 예. 일단 대기, 비상소집하고 대기하고 있겠습니다.

남자 2 : 예,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03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46분 49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/ 일반인

남자 1 : 예. 상황실 박 경장입니다.

남자 2 : 아, 예. 학교 단원고등학교 학생 수학여행 제주도 가는 배 사고 난 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?

남자 1 : 아, 지금 진행 중입니다. 죄송합니다. 지금 제가 전화 받기가 좀 불편해가지고요. 조금 이따가 연락 주십시오.

남자 2 : 예.

남자 1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04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02분 01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/ 서해청 상황실 이선일

이선일 : 감사합니다. 상황실 이선일 경장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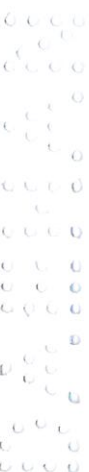
남자 1 : 예. 수고하십니다. 여기 본청 상황실 이 경장입니다. 동원세력 보내야 되는데 지금 안 됐습니까?

이선일 : 예, 보내드리겠습니다, 금방.

남자 1 : 지금 빨리 보내주십시오, 지금 빨리.

이선일 : 예.

남자 1 : 제일 급합니다.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05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10분 49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/ 해양수산부 상황실

남자 1 : 예. 상황실 박 경장입니다.

남자 2 : 예. 수고하십니다. 해수부 상황실인데요.

남자 1 : 예.

남자 2 : 예. 278호정 지금 거리 몇 마일이에요? 사고지점하고 가까워요? ETA 얼마 나오는지,

남자 1 : 잠시만요.

남자 2 : ** 얘기해 주십시오.

남자 1 : 예. 잠시만요. 죄송합니다. 지금 잠시만요. 전화 다시 드리겠습니다.

남자 2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06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12분 35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신민규 / 두라해운

(통화연결음)

여자 1 : 감사합니다. 두라해운입니다.

신민규 : 예. 두라해운이죠?

여자 1 : 예.

신민규 : 예. 여기 해양경찰청인데요.

여자 1 : 아, 예, 예.

신민규 : 지금 두라에이스호가 항해 중에 있지요?

여자 1 : 아니요. 거기서 대기하고 있습니다.

신민규 : 아, 대기하고 있어요?

여자 1 : 예, 예.

신민규 : 지금 조도 근방 대기하고, 진도 밑에 대기하고 있죠?

여자 1 : 침몰하는 배 부근에서 있네요, 지금

신민규 : 예. 그래서 가만히 계신 것 같은데 구조 좀 해 달라고 전화 드렸습니다.

여자 1 : 아, 구조를 해 달라고요?

신민규 : 예. 지금 거기가 거의 침몰 직전이거든요, 한 400명 타고 있는데.

여자 1 : 예.

신민규 : 그게 지금 앵커링 하고 있나요?

여자 1 : 아니, 앵커링 안 하고 있죠.

신민규 : 예. 그러면 옆으로 이동 좀 하셔가지고 구명벌 좀 투하해 주시고 조치 좀 해 주



십시오.

여자 1 : 아, 잠시만요.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?

신민규 : 예. 저는 032-835-2752 해양경찰청 신민규 경위고요.

여자 1 : 어느 분요?

신민규 : 신민규입니다.

여자 1 : 아, 예, 알겠습니다. 전화 드리겠습니다. 835-2752요?

신민규 : 예, 835.

여자 1 : 835-2752요?

신민규 : 예.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

여자 1 : 저는 이영애입니다.

신민규 : 이영애 씨요?

여자 1 : 예, 예.

신민규 : 예. 빨리 연락 좀 해 주세요.

여자 1 : 예, 예.

신민규 : 예.



남자 2 : 선박전화 010-5231-5141이고, 그다음에 선장님은 3867-0415.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, 선장님은?

남자 1 : 문예식 선장님이십니다.

남자 2 : 문예식 선장님이요?

남자 1 : 예. 저희가 지금 구조 부분에 대해가지고 업무지시를 받으려고 대기 중에 있거든요, 어떻게, 어떻게 해야 될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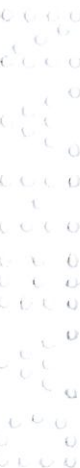
남자 2 : 예. 일단은 저희가 선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너무 지금 긴박한 상황이라요.

남자 1 : 예.

남자 2 :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.

남자 1 : 예, 잘 알겠습니다.

남자 2 : 예. 감사합니다.





◆ 녹음 순번 : #08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20분 58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/ 두라에이스호 선장 문예식

문예식 : 예. 두라에이스호입니다.

남자 1 : 여보세요?

문예식 : 예. 문예식입니다.

남자 1 : 예. 선장님, 해양경찰청입니다.

문예식 : 예?

남자 1 : 해양경찰청입니다.

문예식 : 아, 예, 안녕하십니까?

남자 1 : 잠시만요. 구조 관련해서 좀 알려드릴게요.

남자 2 : 예, 선장님.

문예식 : 예, 예.

남자 2 : 지금 배 상태가 어때요?

문예식 : 지금 배 상태는 한 반쯤 좌현 쪽으로 기울어서 지금 침수 중입니다. 침몰 중이고, 제가 판단할 때는 주위에 지금 헬기 3대, 낚시어선이 한 10척 정도, 해군 함정이 1척, 그리고 유조선이 2척,

남자 2 : 아, 그런데요, 선장님, 승객들이 선실에서 다 빠져나왔어요?

문예식 : 선실에서 다 빠져나왔는지는 저희들이 지금 확인할 길이 없고요.

남자 2 : 아니, 학생들이 모여 있는... 좌현 쪽으로 기울어 있으니까 좌현 쪽에 있는 승객들이 못 빠져나왔을 수도 있어요?

문예식 : 예. 아마 지금 상황은 그게 지금 세월호 그 내부 상황은 저희들이 판단이 안 됨



니다.

남자 2 : 선장님 지금 배에 계신 거 아니에요?

문예식 : 예. 배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두라에이스에 그 근접거리에서 300m 거리에서 지금 전화하고 있습니다.

남자 2 : 선장님은 어떤 배 선장이시죠?

문예식 : 두라에이스호 선장입니다.

남자 2 : 드라이,

문예식 : 두라에이스.

남자 2 : 두라에이스요?

문예식 : 예.

남자 2 : 아, 옆에 있는 배네요?

문예식 : 예, 그렇습니다.

남자 2 : 아~ 그러면 그 배, 그쪽 배에다 알려줄 수 있나요?

문예식 : 예?

남자 2 : 사고 난 배가 아니네요. 그렇죠? (옆 사람이 : 사고 난 배가 아니고요. 옆에 상선이요, 상선.)

여보세요? 상선에서요. 그쪽 배에다가 좀 알려주세요. 총원 다 구명동의를 다 입고 밖으로 나올 수 있으면 갑판상으로 다 집결하라고 그렇게 방송을 좀 해 주세요.

문예식 : 아, 지금 그쪽에 통신기가 꺼져 있는 상태고요. 그 상황들은 전부 다 아까 탈출 경로 계획은 VTS나 전부 다 통화를 했습니다.

남자 2 : 아, VTS로요?



문예식 : 예. 하고, 저희들이 인근 그 상황을 VTS로 지금 제가 호출하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.

남자 2 : 그러면 승객들이 밖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게 보입니까?

문예식 : 아까 지금 어선에서 50명은 탈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정확한 인명수는 저희들이 알 길이 없네요, 여기서.

남자 2 : 승객이 한 400명 타고 있어요, 지금.

문예식 : 예. 저희들은 **

남자 2 : 거기에서 보면 탈출한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?

문예식 : 여기서 그 사항이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. 저희들이 한 300m 떨어져 있거든요.

남자 2 : 조금 더 접근 안 될까요?

문예식 : 그 접근이 굉장히 힘든 게 어선들이 깔려가지고 부유물들이 혼재돼 있어가지고,

남자 2 : 아, 지금 기상이 어떻습니까? 파고 몇 미터나 돼요?

문예식 : 파고는 0.5m, 좋습니다, 시정도.

남자 2 : 아, 시정도 좋고요?

문예식 : 예.

남자 2 : 날씨도 별로 안 춥죠?

문예식 : 예. 별로 안 춥고 지금 현재 기온이 한 15도 정도 되겠네요.

남자 2 : 현재 온도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?

문예식 : 15도 정도는 되겠네요.

남자 2 : 15도씨. 예, 예. 하여간 그거 좀,

문예식 : ** 알겠습니다, 하여튼.

남자 2 : 예.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.



문예식 : 예, 감사합니다.

남자 2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09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39분 10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/ 두라에이스호 선장 문예식

남자 1 : 예. 상황실 박 경장입니다.

문예식 : 예. 두라에이스 선장인데 전화하셨네요?

남자 1 : 어디라고요?

문예식 : 두라에이스 선장입니다. 전화하셨네요?

남자 1 : 전화해 달라고요? 알겠습니다.

문예식 : 아니, 전화가 들어왔다고요, 그쪽에서.

남자 1 : 아~ 예, 예.

문예식 : 여보세요?

남자 1 : 예. 여보세요? 예, 예. 전화가 왔었다고요?

문예식 : 예, 예. 전화가 들어왔네요. 어디시죠?

남자 1 : 여기 해경청 상황실입니다. 해양경찰청입니다.

문예식 : 예. 바빠서 지금. 침몰 중이네요, 배는.

남자 1 : 예. 구조에 협조 바랍니다.

문예식 : 예, 협조하고 있습니다. 하고, 영상 보고 싶으면 우리 회사에 갖다 연락을 해 주세요, 두라해운에.

남자 1 : 아, 두라에이스호 맞으시죠?

문예식 : 예, 맞습니다.

남자 1 : 아, 예, 예.

문예식 : 그거 몇 커트 지금 찍어 보내왔으니까.



남자 1 : 영상이요?

문예식 : 예.

남자 1 : 어디로 보내,

문예식 : 사진이요, 사진.

남자 1 : 아, 어디로 보내놓으셨습니까?

문예식 : 회사에서 받아보시면 됩니다, 두라해운에서.

남자 1 : 아, 회사에서요?

문예식 : 예.

남자 1 : 예, 알겠습니다.

문예식 :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10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43분 09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/ 두라에이스호 선장 문예식

문예식 : 여보세요?

남자 1 : 예, 선장님, 해양경찰청입니다.

문예식 : 예.

남자 1 : 전화 많이 오시죠?

문예식 : 바빠 죽겠다, 지금!

남자 1 : 사진을 보내셨다고,

문예식 : 통화 안 돼요, 지금!

남자 1 : 들었는데요. 여보세요?

문예식 : 예, 예.

남자 1 : 예. 사진을 핸드폰으로 전송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?

문예식 : 아니, 현재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요. 아, 좀 계속 이것저것 연결이, 통화하기가 거북스럽네요.

남자 1 : 잠시만요, 사장님.

남자 2 :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?

문예식 : 아, 지금 상황이 지금 ** 말이 아닙니다. 현재 지금 침몰 중입니다, 지금 세월호는.

남자 2 : 침몰 중이에요?

문예식 : 예.

남자 2 : 승객이 몇 명이나 탈출했는지,



— 끝 —

남자 2 : 보이기는 보입니까? 정확하게는 안 보여도?

문예식 : 예, 예. 300m 정도 근해에 있습니다.

남자 2 : 예, 알겠습니다.



◆ 녹음 순번 : #11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45분 05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신민규 / 본청 정보통신과

남자 1 : 예. 감사합니다. 정보통신과 **

신민규 : 신민규인데요. 비디오 컨퍼런스 담당자 누구예요?

남자 1 : 비디오,

신민규 : 컨퍼런스. 소형정.

남자 1 : 소형정 지금 연락하고 있어요.

신민규 : 아니, 다 빼고 P57만 넣어요, P57.

남자 1 : 57이요?

신민규 : P57, 본청 상황실, 그다음에 서해청, 목포 상황실, 완도 상황실. 나머지는 영풍하
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안 들어가져요, 들어갈 수가 없어요, 자체가.

남자 1 : 아, 빼버리라고요?

신민규 : 다 빼버리세요. 다 빼버리고 P57만 나오게 하라고요.

남자 1 : 아, 예, 알겠어요.

신민규 :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12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49분 11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신민규 / 완도 상황실장

남자 1 : 예. 완도 상황실장입니다.

신민규 : 예. 실장님, 본청 상황실인데요.

남자 1 : 예.

신민규 : P57 연락처가 어떻게 됩니까?

남자 1 : P57이요?

신민규 : 예.

남자 1 : 010-4779-5675.

신민규 : 이 번호가 안 되는 번호라는데 통화 되세요? 통화하셨어요?

남자 1 : 010-4779-5675.

신민규 : 그러니까 이 번호로 통화가 되셨냐고요?

남자 1 : 예, 예.

신민규 : 저 안 되던데. 지금 세월호 완도 P57에서 들어온 사항 있습니까? 정보사항?

남자 1 : 아니요. 계속 거의 다 침몰되고 꼭지만 남았습니다, 갑판, 선수 갑판만 살짝 나와 있습니다.

신민규 : 아, 그러면 사진이라든가 영상 이게 안 올라와가지고요.

남자 1 : 영상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. 못 보십니까?

신민규 : 아, 보이긴 보이는데 다 끊기고 그래가지고. 일단은 알겠습니다. 구조인원 같은 건 확인이 안 되죠?

남자 1 : 우리 메시지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. 아직 구조 57정이 이제 도착해가지고 아

직 구조 없습니다.

신민규 : 알겠습니다.

남자 1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13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51분 59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신민규 / 278함정

남자 1 : 감사합니다. 278함입니다.

신민규 : 예. 수고 많으십니다. 본청 상황실인데요.

남자 1 : 본청 상황실이요?

신민규 : 본청 상황실. 지금 이동 중이지요?

남자 1 : 예, 이동 중에 있습니다.

신민규 : 지금 ENG카메라가 나온 데가 없는데 ENG카메라 되죠?

남자 1 : 예. 저희 ENG카메라 지금 작동하겠습니다. 그런데 배가 사고 현장까지 20분 정도 남아서요. 아직,

신민규 : 예, 알고 있습니다. 278 ENG카메라 해가지고 현장에 잘 비추도록 하세요.

남자 1 : 예, 알겠습니다.

신민규 : 전속 이동하십시오.

남자 1 : 예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신민규 : 예. 또 전화 드릴게요.

남자 1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14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53분 13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신민규 / 완도 상황실장

남자 1 : 예. 상황실장입니다.

신민규 : 예. 완도죠?

남자 1 : 예.

신민규 : 예. 본청 상황실인데요.

남자 1 : 예.

신민규 : P57정에 연락하셔서 지금 비디오 컨퍼런스 찍고 있는 거 녹화 좀 잘하시라고 전해 주십시오.

남자 1 : 예, 알겠습니다.

신민규 : 예.



- ◆ 녹음 순번 : #15
- 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55분 18초
- 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신민규 / 278함정

남자 1 : 예. 완도 278함입니다.

신민규 : 예. 본청 상황실인데요.

남자 1 : 예, 예.

신민규 : ENG 왜 안 켜요?

남자 1 : 지금 ENG 켜습니다.

신민규 : 안 나오는데?

남자 1 : 예.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.

신민규 :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요.

남자 1 : 예, 알겠습니다.

신민규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17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58분 54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신민규 / 본청 정보통신과 이규재

이규재 : 예. 278 안 나오나요?

신민규 : 278 안 나와요. 죽겠네.

이규재 : 아, 그래요?

신민규 : 지금 장관 오고 있는데 우리 상황실로 지금.

이규재 : 278 안 나와요? 빨리 할게요.

신민규 : 예.

이규재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18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59분 18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신민규 / 278함정

남자 1 : 예. 278함입니다.

신민규 : 예. 본청 상황실인데요.

남자 1 : 예.

신민규 : ENG 켜 줄 몰라요?

남자 1 : 지금 켜져 있습니다, 저희.

신민규 : 전송이 안 돼요.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. ** 하셨는지.

남자 1 : 연결 다 돼 있고 지금 전송된다고 파란 불 들어와 있는데요.

신민규 : 다 했다고요? 예, 알겠습니다.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.

남자 1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19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06분 57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신민규 / 278함정

남자 1 : 예. 278함입니다.

신민규 : 예. 본청 상황실인데요. ENG 잘 나오고 있고요. ENG 통신하시면서 숫자 같은 것 있잖아요, 시간하고 숫자 이런 거 좀 다 없애세요. 없애시고, 지금 선수만 남아 있거든요. 빨리 좀 이동하셔서 그쪽 좀 비춰보세요.

남자 1 : 예. 숫자를 없애라고요?

신민규 : 예. ** 다 없애셔야죠.

남자 1 : 예, 알겠습니다.

신민규 :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20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11분 38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/ 본청 정보통신과 이규재

이규재 : 예. 이규재 경장입니다.

남자 2 : 278 그 위성모바일 영상 ENG 있잖아.

이규재 : 예.

남자 2 : 278 잡아봐 봐.

이규재 : 지금 잡아냈습니다.

남자 2 : 지금 나오고 있나?

이규재 : 예.

남자 2 : 응. 나오고 있네. 알았어.

이규재 : 예.

- 끝 -



◆ 녹음 순번 : #21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18분 04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신민규 / 278함정

남자 1 : 예. 278함입니다.

신민규 : ENG 지금 꺼졌고요.

남자 1 : 예.

신민규 : 아니, 다시 살았고, 그 숫자 좀 잘 지워 봐요. 왜 이렇게 안 지워요.

남자 1 : 숫자 지운 겁니다.

신민규 : 오른쪽에 있는 파일 이거 못 지워요?

남자 1 : 그거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. 지우라고 해서 안에 디스플레이 지금 세팅해서
전부 지운 건데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안
지워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

신민규 : 확인해 보세요. 됩니다.

남자 1 : 예, 확인해 보겠습니다.

신민규 : 예.



- ◆ 녹음 순번 : #22
- 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27분 33초
- 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신민규 / 목포서 상황실

남자 1 : 감사합니다. 목포 상황실입니다.

신민규 : 예. 본청 상황실인데요. 목포 122구조대 몇 명 이동했습니까?

남자 1 : 지금 파악해 봐야 되니까요.

신민규 : 이동하고 ETA 확인 좀 해 주세요.

남자 1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23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37분 54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신민규 / 목포서 상황실

남자 1 : 감사합니다. 목포 상황실입니다.

신민규 : 예. 본청 상황실인데요. 목포 구조대 몇 명 이동했죠?

남자 1 : 10명 이동하고 있습니다.

신민규 : 10명 이동. ETA 언제죠?

남자 1 : 12시요.

신민규 : 12시요?

남자 1 : 예.

신민규 : 12명 12시요.

남자 1 : 10명 12시.

신민규 : 10명 12시요? 예, 알겠습니다.

남자 1 :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24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40분 17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신민규 / 두라해운

여자 1 : 감사합니다. 두라해운입니다.

신민규 : 예. 수고하십니다. 해양경찰청인데요.

여자 1 : 예, 예.

신민규 : 두라에이스호가 이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혹시 인원 구조한 사항 같은 거 혹시 연락 온 거 있습니까?

여자 1 : 저희는 지금 짐을 채우고 있어갖고 지금 위험해갖고 그쪽으로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고요. 계속 지키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하는데, 상황 보고하고 그 정도였거든요.

신민규 : 저희한테는 하나도 안 보내주셨던데.

여자 1 : 저희한테 연락을 줘가지고 핸드폰번호를 찍어주셔야지. 하도 전화가 많이 와갖고요. 핸드폰번호 알려주는 데만 저희가,

신민규 : 그러면 010이고요.

여자 1 : 아, 지금 보내달라고요?

신민규 : 보내주시면 좋겠는데요.

여자 1 : 아, 지금 보내드릴게요.

신민규 : 예. 010,

여자 1 : 그런데 그게 다 뉴스에도 나온 내용이던데.

신민규 : 괜찮습니다.

여자 1 : 예. 010,



신민규 : 4406-8129.

여자 1 : 8129.

신민규 : 예, 예.

여자 1 : 예. 사진만 일단 보내드릴게요. 4406-8129요?

신민규 : 예, 8129. 인원 구조하신 건 없고 사진만 찍으신 거죠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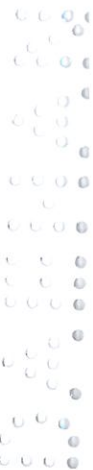
여자 1 : 예. 잠시만요. 어디시라고요, 여기는?

신민규 : 해양경찰청입니다.

여자 1 : 예, 알겠습니다. 지금 보내드릴게요.

신민규 : 예. 고맙습니다.

여자 1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25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44분 56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신민규 / 남자 1

신민규 : 감사합니다. 상황실 신민규입니다.

남자 1 : 예. 정보3계 **입니다.

신민규 : 어디요? 정보요?

남자 1 : 예. 현재 구조 인원만 좀 알 수 있을까요?

신민규 : 현재 확인된 건 162명입니다.

남자 1 : 162명.

신민규 : 예.

남자 1 : 예, 고맙습니다.

